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 관련 변인 연구

홍성례
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Subjective Life-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in Young Adulthood

Sung-Rye Hong
Dept. of Child Care and Welfare,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청년기 대학생 280명이다.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관계 변인(부모관계만족, 친구관계만족), 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이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모관계만족, 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결혼의향 변인 등이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준비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0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The data collected using the questionnaire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socioeconomic level), relationship variables (satisfaction of par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and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attitude toward happiness, job preparation, and marriage intention) on the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atisfaction of parent relationship, self-esteem, attitude toward happiness, and marriage inten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Job prepar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Keywords : College Students, Subjective Life-Satisfaction, Self-Esteem, Attitude toward Happiness, Marriage Intention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 나아가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삶은 무엇이고 행복한 삶은 무

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르다.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국제 행복의 날’이었던 지난 2023년 3월 20일 ‘세계행

*Corresponding Author : Sung-Rye Hong(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finetree7@yit.ac.kr

Received November 1,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Revised December 7,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7개국을 대상으로 한 행복 순위에서 57위를 차지했으며[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35위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는 세계 85개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정치·경제·군사력 등을 포함한 국가 영향력을 설문조사해 매년 발표하는데, 이것들을 합산해 평가하는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 USNWR은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

국가지표체계(2023)에서 제시하는 삶 만족도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0~10점 척도)를 측정한다. 2022년 기준 삶에 대한 만족도는 6.5점으로 성별 간 차이는 없었으며, 2013년 5.7점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한국은 5.94점으로 OECD 평균(6.71점)보다 0.77점 낮았다[3].

이와 같이, 현재의 한국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면서 물질적 풍요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오늘날 청년층인 대학생들은 사회적 대인관계가 주로 디지털기반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4]. 그래서 대학생이 신속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한데, 특히 심리정서적 안전망을 잘 구축하여 삶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관계 변인(부모관계만족, 친구관계만족) 그리고 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삶 만족도 향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삶 만족도는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삶 만족도는 삶의 의미·목적·사회적 기능 정도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속하는 개념이다[5-7]. 개인마다 삶 만족도

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특정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기보다, 개인의 고유 기준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다[8,9]. 과거에는 국가의 행복수준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국내총생산(GDP) 등의 경제지표와 실질적인 행복 간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10].

삶 만족도는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성별과 삶 만족도 간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권혁창, 김지현[11], 석재은, 장은진[12], Joshanloo와 Jovanovic[13] 등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삶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삶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음을 제시한 연구들[8,14,15]이 있다. 또한 삶 만족도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3,10,16]도 있다. 이처럼 삶 만족도의 성별 차이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과 삶 만족도간의 관계가 수많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17].

경제적 변인도 마찬가지로이다. 구재선, 김의철[18]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여유, 김수영 외[19]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의식, 이미숙, 전형익[10]의 연구에서는 객관적·주관적 경제수준(월평균가구소득, 주관적인 사회계층 인식)이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준원 외[1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삶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경제적 변인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삶 만족도는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변인과 같은 환경요인은 심리적 특성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이전 연구들[14,20]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변인이 청년기 대학생의 삶 만족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기인 대학시절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확장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처럼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은 삶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로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홍성례[6]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만족이 삶 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 박재림, 신희영[8]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삶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수연, 김경미[21]의 연구도 있

다. 구재선, 김의철[1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는 삶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친구관계[18]나 친구의 사회적 지지[8]도 삶 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으로 부모관계만족과 친구관계만족 변인을 포함하였다.

삶 만족도는 개인특성 변인들과도 관련이 있다.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평가하는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하며 삶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으로써, 직접적으로 삶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14,22]. 다수의 연구들[14,22-25]에서 삶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삶 만족도는 행복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행복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보편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전제하에, 외부 사건 혹은 상황에 관심을 두었으나 객관적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인의 내적인 심리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18]. 행복이 전적으로 외생적인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심리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18]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 실업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형순, 이재창[24]의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삶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취업준비도가 대학생의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청년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시기로, Erikson은 친밀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26]고 보았다. 이처럼 청년기는 타인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사랑이나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가치)관[27-29]이나 결혼동기[27,29], 결혼의향[30] 등의 변인과 가족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주로 탐색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를 의미하는 결혼의향[31]이 청년기 대학생 자신의 삶 만족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을 포함하여, 이 변인들이 삶 만족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변인으로,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관계 변인(부모관계만족, 친구관계만족)·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기 대학생들의 주관적 삶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와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관계 변인(부모관계만족, 친구관계만족) 그리고 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관계 변인(부모관계만족, 친구관계만족)·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은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대학생의 삶 만족도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 106명(37.90%)과 여자 대학생 174명(62.10%)으로 총 280명의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평균 연령은 21.15세이다. 학년은 1학년 70명(25.00%), 2학년 60명(21.40%), 3학년 136명(48.60%), 4학년 14명(5.0%)이었다.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178명(6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기독교) 74명(26.40%), 불교 14명(5.50%), 천주교 12명(4.30%), 기타 1명(0.70%) 순이었다.

자료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의표집을 하였다. 조사는 2022년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310부를 배포하여 292부를 수거하였다. 최종분석에는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80부가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변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주관적 삶 만족도 변인과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관계 변인(부모관계만족, 친구관계만족) 그리고 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 관계 변인, 개인특성 변인 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인구학적 변인에는 성별 변인과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변인이 포함된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된다. 9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2.2.2 관계 변인

관계 변인으로는 부모관계만족 변인과 친구관계만족 변인이 포함된다. 부모관계만족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의 단일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관계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만족은 단일문항으로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2.2.3 개인특성 변인

개인특성 변인에는 자아존중감 변인, 행복에 대한 태도 변인, 취업준비도 변인, 결혼의향 변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32]가 개발한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태도는 단일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에 대한 응답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취업준비도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현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취업준

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이며, 1점(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 5점(매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은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다’와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2.2.4 주관적 삶 만족도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삶 만족도는 주관적인 삶 만족도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삶 만족도가 높아진다.

3. 연구결과

3.1 주관적 삶 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관계

3.1.1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주요 변인들의 특성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ean(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kewness	Kurtosis
subjective life-satisfaction	4.69(1.64)	1.00	7.00	-.48	-.65
socioeconomic level	4.80(1.54)	1.00	9.00	.13	.63
satisfaction of parent relationship	5.59(1.43)	1.00	7.00	-.94	.54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5.60(1.15)	2.00	7.00	-.70	-.03
self-esteem	3.54(.75)	1.50	5.00	-.16	-.45
attitude toward happiness	3.95(.96)	1.00	5.00	-.83	.26
job preparation	3.11(.97)	1.00	5.00	-.33	.09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절대값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주요 변인들이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 subjective life-satisfaction	1.00								
2. gender(dummy)	.01	1.00							
3. socioeconomic level	.03	.07	1.00						
4. satisfaction of parent relationship	.59***	-.04	.05	1.00					
5.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47***	.09	.15**	.46***	1.00				
6. self-esteem	.72***	.04	.01	.47***	.49***	1.00			
7. attitude toward happiness	.53***	.04	.07	.44***	.33***	.46***	1.00		
8. job preparation	.39***	-.15**	.10	.32***	.23***	.50***	.31***	1.00	
9. marriage intention (dummy)	.42***	.21**	.14	.18*	.11	.41***	.20*	.26***	1.00

* $p < .05$, ** $p < .01$, *** $p < .001$

주관적 삶 만족도는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는 부모관계만족($r = .59, p < .001$), 친구관계만족($r = .47, p < .001$), 자아존중감($r = .72, p < .001$), 행복에 대한 태도($r = .53, p < .001$), 취업준비도($r = .39, p < .001$), 결혼의향($r = .42, p < .001$) 등과 의미 있는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주관적 삶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관계 변인·개인특성 변인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값(VIF)을 살펴 보았다. 공차한계는 .10 이상(.39 - .99)이고, 분산팽창요인값은 10 이하(1.01-2.56)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변인들의 자기 상관을 확인한 결과, 1.73-1.9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문제가 없었다. 다음에는 주관적 삶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인의 위계에 있어서 Model 1은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을, Model 2는 인구학적 변인과 관계 변인(부모관계만족, 친구관계만족)을 투입하였다. Model 3은 인구학적 변인, 관계 변인, 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을 투입하였다.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1에서는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

적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과 사회경제적 수준 변인은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 전체 변량의 1%를 설명하였다.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of Subjective Life-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Demographic variables	gender(dummy)	.03	.01	.04	.01	.05	.02
	socioeconomic level	.03	.03	-.03	-.03	-.03	-.03
Relationship variables	satisfaction of parent relationship			.55	.48***	.26	.25***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36	.25***	-.01	-.01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lf-esteem					1.05	.48***
	attitude toward happiness					.41	.25***
	job preparation					-.22	-.14*
	marriage intention(dummy)					.59	.16**
F		.16		46.53***		39.50***	
R ²		.01		.40		.67	
ΔR^2		.01		.39		.28	
Durbin-Watson Statistics		1.78		1.80		1.97	

* $p < .05$, ** $p < .01$, *** $p < .001$

Model 2에서는 관계 변인인 부모관계만족과 친구관계만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인구학적 변인은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이 없었으며, 부모관계만족($\beta = .48, p < .001$)과 친구관계만족($\beta = .25, p < .001$) 변인은 대학생의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는 높아졌다. Model 2는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 전체 변량의 40%를 설명하며, 변량이 Model 1보다 39% 증가하였다.

Model 3에서는 인구학적 변인과 관계 변인에 개인특성 변인을 추가하여 자아존중감, 행복에 대한 태도, 취업준비도, 결혼의향 등의 변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이 있는 변인은 없으며, 관계 변인에서는 부모관계만족($\beta = .25, p < .001$)이 주관적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친구관계만족은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이 없었다. 개인특성 변인에 포함된 네 가지 변인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주관적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beta = .48, p < .001$), 행복에 대한 태도($\beta = .25, p < .001$), 결혼의향($\beta =$

.16, $p < .01$)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준비도($\beta = -.14$, $p < .05$)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취업준비를 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어 자신이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는 높아졌다. Model 3은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 전체 변량의 67%를 설명하며, 변량이 Model 2보다 28% 증가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청년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삶 만족도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와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구학적 변인(성별, 사회경제적 수준)은 삶 만족도와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취업을 준비할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에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모관계만족과 행복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결혼의향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인구학적 변인이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삶 만족도에 있어 성차가 없음을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들[3,10,16]을 지지하며,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삶 만족도는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는 김준원 외[14]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삶 만족도가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환경요인은 심리적 특성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지지하는 연구들[14,20]을 지지한다.

부모관계만족이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삶 만족도를 높임을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들[6,8,18,21]을 지지한다. 친구관계만족보다도 부모관계만족이 청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가족 속에서 느끼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만족이 더욱 소중함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전의 많은 연구들[14,22-25]이 제시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삶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행복이 외생적 사건이 아니라 내적인 심리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는 구재선 외[18]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자신이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보다 주관적 삶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의향이 개인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영향력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취업준비도는 대학생의 삶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형순, 이재창[2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삶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대한 태도가 대학생의 삶 만족도에 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삶에서 마주하는 기본적인 도전에 맞서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적 경향[25,33]인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크게 변경하지 않더라도 주관적 인식의 변화와 실천적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들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연구에서는 삶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특성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순히 경제력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종류의 지표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을 단일문항으로 측정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탐색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고 검증되길 기대한다.

셋째, 결혼의향이 청년기 대학생들의 주관적 삶 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된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개인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을 보이는 한국의 현 상황 속에서, 사회적·정책적 차원의 실천방안이 담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만의 새로운 결혼관계와 가족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감을 부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삶 만족도 관련 변인으로 관계 변인, 개인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관적 삶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특성들을 반영한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심리정서적·관계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탐구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사회 대학생의 일반적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시대적·세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부모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대한 태도, 결혼의향 등이 주관적 삶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Yonhap News. Korea ranks 57th in the world in happiness... the lowest of OECD member countries [Internet]. [cited 2023].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0157700009> (accessed May. 26, 2023)
- [2] The JoongAng. 'Most Powerful Country' Korea Beat Japan...U.S. "World Ranking" Battle [Internet]. [cited 2023]. Available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436> (accessed May. 28, 2023)
- [3] K·indicator. Life Satisfaction [Internet]. [cited 2023]. Available From: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4> (accessed July. 12, 2023)
- [4] S. R. Hong, "The Effects of Gri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Vol.13, No.6, pp.4975-4988, 2022.
- [5] E. H. Shin, *Family Strengths and Related Variables Perceived by Adult Males and Females*, Ph.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2020.
- [6] S. R. Hong., "Subjective Life-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of Married Males and Femal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Vol.12, No.5, pp.731-746, 2021.
- [7]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542-575, 1984.
- [8] C. R. Park, H. Y. Shin, "Social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Life Satisfaction: Whose Support Matt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5, No. 3, pp.83-106, 2022. DOI: <https://doi.org/10.35574/KJDP.2022.9.35.3.83>
- [9] W. Pavot, E. Diener,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he emerging construct of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3, No.2, pp.137-152, 2008.
- [10] M. S. Lee, H. I. Ji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quality of life in Korea", *Innovation Studies*, Vol.13, No.4, pp.227-251, 2018.
- [11] H. C. Kwon, J. H. Kim, "The effects of national pension servi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Vol.11, No.6, pp.1961-1972, 2020.
- [12] J. E. Seok, E. J. Jang,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resource by gende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1, No.2, pp.321-349, 2016.
- [13] M. Joshanloo, V. Jovanović,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analysis across demographic groups and global regions", *Arch Womens Ment Health*, Vol.23, No.3, pp.331-338, 2020.
- [14] J. W. Kim, D. H. Han, Y. S. Lee, K. J. MIN, J. Y. Park, K. S. Lee,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life S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52, No.3, pp.150-156, 2013.
- [15] L. Goldbeck, T. G. Schmitz, T. Besier, P. Herschbach, G. Henrich, "Life satisfa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ce", *Quality of Life Research*, Vol.16, No.6, pp.969-979, 2007.
- [16] H. J. Lee, "Effect of life goal pursuit on life satisfaction: Comparison by ag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0, No.1, pp.261-293, 2022.
- [17] C. J. Park,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nd age of middle-aged an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42, No.4, pp.855-871, 2022.
- [18] J. S. Koo, U. C. Kim, "Integrated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trait, life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0, No.4, pp.1-18, 2006.

- [19] S. Y. Kim, K. J. Moon, S. J. Chang, "Exploring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baby boomers by using multi-lev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KJGSW)*, Vol. 71, No.4, pp.391-421, 2016.
- [20] E. Diener, M. E. Seligman, M. E. "Very happy people", *Psychol Sci.*, Vol.13, pp.81-84, 2002.
- [21] S. Y. Park, K. M. Kim, "The effect of parent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on of self-identity", *The Korean East West Mind Science Association*, Vol.25, No.1, pp.39-52, 2022.
- [22] U. Schimmack, E. Diener, "Predictive validity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for subjective well 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37, No.2, pp.100-106, 2003.
- [23] J. Y. Lee,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JBAM)*, Vol.17, No.2, pp.141-155, 2023.
- [24] H. S. Lee, J. C. Lee,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AJMAHS)*, Vol.8, No.4, pp.553-562, 2018.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339030
- [25] S. H. Jeon, H. C. Seo,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Vol.13, No.4, pp.963-976,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4.68>
- [26] B. D. Son, M. J. Sung, E. R. Baek, E. M. Lee, I. H. Choi, J. H. Jeong, H. A. So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p.454, Hakjisa, 2022.
- [27] E. J. Kim, K. J. Ko, H. J. Chung, "The Relationship of Family-related Variables on Views on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30, No.2, pp.277-305, 2022.
DOI: <http://dx.doi.org/10.21479/kaft.2022.30.2.277>
- [28] J. W. Kim, J. H. Lee, "The Influences of Family Strength, Adul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Marriage Valu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19, No.13, pp.677-700,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3.677>
- [29] M. R. Park, N. j. Je, "The Effect of View on Marriage, Children, Psychosocial Maturity, Social Pre-parental Role Recognition on Marriage Motivation in Colleg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1, pp.316-328,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1.316>
- [30] J. H. Han, J. Y. Park,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elf-construal and Perception of Their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on Their Marriage Intention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7, No.3, pp.27-48, 2022.
DOI: <https://doi.org/10.21321/jfr.27.3.27>
- [31] A. H. Park, J. M. Lee,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dult Attachment on the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6, No.4, pp.33-50, 2022.
DOI: <https://doi.org/10.21321/jfr.26.4.33>
- [32]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p.319, N. Y.: Basic Books, 1979.
- [33] N. Branden, *The Power of Self-Esteem*, p.97, Health Communications, Inc., 2021.

홍 성 례(Sung-Rye Hong)

[정회원]



- 1993년 2월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문학사)
- 2001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가족학 전공, 이학박사)
- 2010년 2월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가족, 가족문화, 가족상담, 사회복지